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, 은행의 외환건전성 양호 평가

□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차례에 걸쳐 「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」을 마련하여 시행함.

- 1차는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강화,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,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,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,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.
- 2차는 8월부터 시행되었고 외화유동성 비율 일별관리,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강화,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, 외국은행지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확대 등이 시행됨.

□ 금감원은 1차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, 외화유동성비율,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등 이행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함.

- 8월말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은 98.8%로 규제 비율을 상회했으며 3월말 94.6%, 6월말 97.1%, 7월말 98.7%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냄.
 - 7월부터 외화자산에 대한 가중치를 100%에서 35~100%로 차등 적용한 후에도 규제기준을 웃도는 등 이행상태가 양호함.
-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 역시 7월말 138.5%로 규제비율인 90%를 크게 상회함.
- 국내은행이 보유한 A등급 이상의 국공채와 회사채, 중앙은행·금융회사 외화예치금 등 외화안전자산은 총 외화자산의 6.7%로 최저기준을 상회함.
- 국내은행 대부분이 내부 관리기준을 수립해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위기 상황분석 등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.
 -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시스템의 보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임.
-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물거래 대비 125% 이내로 제한한 결과, 대부분의 투자자와 실물거래 대비 50% 내외에서 거래 중에 있음.

(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 점검 등, 금감원 등, 9/16)